

제주 시인들의 시 인식 대상과 문학적 형상화

강 영 기*

차 례

- I. 서론
- II. 자기인식을 활용한 시인의 인식 파악
- III. 제주시인들의 시 인식 대상과 문학적 형상화
 1. 현실사회와 문학적 형상화
 2. 역사인식과 문학적 형상화
 3. 순수성 추구와 문학적 형상화
- IV. 결론

I. 서론

인식은 객관적 실재의 성질·구조, 합법칙성이 경험적·이론적 지식(Wissen)이라는 형태로 인간의 의식 속에 비교적 적합하게 반영된 것을 말한다. 인식과정(Erkenntnisprozess)은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이 객관적 실재를 이론적으로 자기화(Aneignung)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객관적 실재의 속성, 구조, 합법칙성을 인간의 지식 내지 인식 속에 점점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반영’해 나가는 과정¹⁾이다. 그러므로 인식은 시인이 지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1) 한국사회연구소 편, 『사회과학사전』(풀빛, 1990), pp. 441~442.

닌 사물에 대한 인지(認知)와 식별(識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억과 사고 작용 및 그 결과이다.

시가 삶의 구체적인 양상으로서 현실 속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대립·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시에는 대상을 인식하는 시인 자신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고 시인은 詩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의 식(識)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 시는 시인이 살고 있는 현실의 실상을 읽어내는 '인식의 틀'로 작용한다.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실존적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시인은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의미의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삶의 공간을 확정하고, 시인의 자유, 시인의 주체를 확인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시인이 지닌 생의 태도와 주체적인 사고, 행동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는 결국 그가 어떤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것은 시 속에 형상화된 대상에 대하여 시인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이 글은 제주 시인들의 시 인식 대상과 그것에 따른 문학적 형상화 작업을 구명함으로써 제주 문학에 드리워진 다양한 성격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제주 시인들의 시작품에 나타나는 인식의 대상에 대한 구명을 통해 인식의 대상이 어떻게 정서와 만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지만, 제주 문학을 담당하는 모든 시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일부 시인의 작품을 이 글의 텍스트로 삼고 있다는 점은 이 글의 지닌 한계이다.

II. 자기 인식을 활용한 시인의 인식 파악

시는 시인의 자기 인식의 산물이다. 시의 내용은 아무리 사회적인 것이

2) 문제의식이란 총체적 현실 속에서 시인의 삶이 부딪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시인 나름의 인식과 해결 전망을 의미한다.

라 하더라도 늘상 개인의 자기 인식을 매개로 현실과 이상의 상호 연관을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시인의 자기 인식이다. 시인은 객관적 실재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주관적 정서를 이야기한다. 그 주관적 정서는 시적 내용이 된다.

시 인식의 내용은 시적 주체로서 화자의 내면성을 통해 나타난다. 그것은 어떤 이상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내면적인 힘이다. 그러므로 시적 인식의 내용은 자기 인식의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에서의 자기 인식은 시인의 내면에서 어떤 인식 내용들이 가치적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의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감각(대상)에 대한 인식 내용을 시인이 어떻게 자기 인식화하여 정서로 표출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게 된다. 예를 들면 꽃이 지는 풍경을 시로 형상화할 때 시인은 꽃이 지는 풍경을 객관적으로 그리지 않고, 봄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상실한 정경으로 그려낸다. 즉 시에서는, 꽃이 지는 풍경(인식 내용)이 이상과 아름다움(봄)의 기준에 비추어, 그것의 상실로서 자기 인식화된다. 그리고 이때 봄의 아름다움의 상실이라는 자기 인식은 슬픔이라는 주관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³⁾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대 상	자기 인식	정 서
꽃 지는 풍경	봄의 상실	슬픔
객관적 실재	실재-이상	주관적 표현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시의 주관적 정서는 객관적 실재가 시인의 내면에서 자기 인식화된 결과로 나타난다. 즉 시의 주관적 정서의 핵심에는 시인 내면의 자기 인식이 놓여 있으며, 그 자기 인식은 객관적 실재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실재에 대한 인식

3) 나병철, 『문학의 이해』(문예출판사, 1995), p. 153.

내용이 달라지면 자기 인식의 내용도 변화되며, 그에 따라 주관적 정서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시인의 인식을 자기 인식의 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객관적 실재에 대한 인식의 내용과 그에 따른 주관적 정서를 파악하는 한 방법이 된다.

Ⅲ. 제주 시인들의 시 인식 대상과 문학적 형상화

시는 시인의 인식의 산물이다. 시의 내용은 아무리 사회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인의 인식을 매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시인은 객관적 실재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주관적 정서를 이야기하며, 그 주관적 정서는 곧 시의 내용을 이룬다.

그러므로 어느 한 시인의 시에 나타나는 인식의 대상을 살펴보는 것은 시인의 삶과 문학 작품의 상호 작용을 밝히는 것과 같다. 문학을 포함한 예술은 생활의 진리 또는 진리를 반영하는 내용과 형식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대응될 때 미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역 문학을 형성하는 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통해 드러내는 자기 인식과 그 대상을 살펴보는 것 역시, 작가가 살아가는 지역의 문학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1. 현실 사회와 문학적 형상화

문학이 아무리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상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학은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표현하는 문학 역시 사회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작가의 사회적 출신, 가정 배경, 경제적 지위 등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작품 자체의 내용 역시 그 시대의 상황에 영향

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실 사회는 작가에게 인식의 대상이 된다. 다음에 제시하는 작품은 경제적 현실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납부금 독촉장에 이리저리 밀리다가
 끝내는 출석부 너의 이름에
 붉은 줄이 그어지던 날
 뱃놈이 되어 동생 셋은 제 손으로 공부시키겠다며
 죽어도 아버지의 경제는 타하지 않겠다며
 교문을 박차고 나섰지
 요즘은 허벅지까지 오는 검정장화를 신고
 기름때 얼룩진 작업복을 입고
 자리 철이면 자리배에
 방어 철이면 방어배에 몸을 실어
 가파도 지나 마라도 건너
 밤을 낮 삼아 동차게 살아간다고 들었다

— 김수열, 「뱃놈」⁴⁾에서

인용 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그만두고 생활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학생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학생의 뛰어난 생활의 현장은 바다이다. 그래서 바다는 학생에게 경제적 수단이며, 생계유지의 수단이 된다. 시인은 어려운 가정형편과 세 명의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학업을 그만두고 “자리 철이면 자리배에/방어 철이면 방어배”에 몸을 실어야 하는 학생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시인의 의도에는 다분히 시를 통한 사회적 모습의 형상화와 그에 따른 사회 비판의식이 담겨진다. 이 과정에서 시인의 자기 인식이 나타난다. 다음에 제시하는 작품은 현실 정치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동차 정비공 김씨

4) 김수열, 『어디에 선들 어떠랴』(파피루스, 1997).

'세상이 지들 것인 줄 아나'
신문을 보다 말고
기름때 묻은 장갑을 낀다

(중 략)

카드 결제를 하고 운전석으로 오르는데
'차를 알고 운행해야 차도 사람도 편한 법입니다'
장갑 낀 김씨가 손을 흔든다

부품들이 어울려 돌아가고
자동차가 움직인다
라디오를 틀자
국회 청문회는 아직도 생중계 중이다

— 김성주, 『세상이 지들 것인 줄 아나』⁵⁾에서

인용 시는 자동차를 고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에피소드를 소재로 삼는다. 이 속에는 시인의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이 의도적으로 담겨진다. 시인은 자동차 수리공의 이야기한 “세상이 지들 것인 줄 아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시인은 “차를 알고 운행해야 차도 사람도 편한 법입니다”라는 삶의 방식을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자동차 정비공 김씨의 목소리를 통해 독자에게 들려준다. 이 속에는 시인의 생각하는 정치의 방법이 담겨져 있다. 올바른 정치란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백성들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시인의 인식은 “라디오를 틀자/국회 청문회는 아직도 생중계 중이다”라는 언술을 통해 올바른 정치가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결국, 시인은 백성을 위한 현실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말장난으로 끝나버리는 현실 정치를 비판한다. 이 속에서 문학의 사회성이 나타난다. 다음에 제시하는 작품은 풍자를

5)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2005년 상반기』(실천문학사, 2005).

통해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 총재님

육백년 도읍지에
군용담요를 뒤집어 깔고

남산과 북한산이
짜고 치는 화투판 같다

번번이 '광값'만 챙기는
총재님도
가짜만
같다

— 고정국, 「패러디 인 서울·2」⁶⁾에서

시인은 정치판을 짜고 치는 화투판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시인에게 있어서 한 정당의 수장인 총재님도 가짜가 된다. 그럼, 시인에게 총재님은 왜? 가짜가 될까. 그 이유는 “번번이 ‘광값’만 챙기”기를 통해 상징되는 금전정치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기인한다.

또한, 시인은 길재의 시조 패러디를 통해 정치판의 혼란으로 인해 진짜가 아닌 가짜로 변해버린 패러디 된 서울을 인식한다. 이 속에서 시인은 풍자를 통해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금까지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인들의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은 현실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인으로 하여금 풍자와 고발, 또는 담담하게 그려내기, 현실에 대한 통탄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게 한다. 이 속에서 제주 문학의 지닌 하나의 성격으로 문학의 사

6)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2002년 하반기』(실천문학사, 2002).

회성을 보여준다. 다음에는 시인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역사 인식과 문학적 형상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란 무엇인가? 적어도 작가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정의(正義)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며 이 과정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그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작가는 역사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의 압력에 굴복한 작가는 문학 작품을 쓰지 않고 역사를 서술하게 되며, 그 압력을 극복한 작가는 역사를 서술하지 않고 문학 작품을 쓰게 될 것이다. 작가의 이러한 태도는 문학을 통한 역사의 형상화 작업으로 나타난다. 다음에 제시하는 작품은 역사적 압력에서 벗어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정의(正義)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형상화한다.

흙이 밀어내는 역한 주검 냄새
수증기처럼 허공으로 솟아오른다
몽고족은 기어이 김통정을 찾아 왔다
쓰러지는 것은 언제나 약자지만
역사는 강자가 옳았다고 두둔하는 것만은 아니다

— 김광렬, 『항파두리 토성을 걸으며』⁷⁾에서

이 시에는 시인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시된다. 그것은 “역사는 강자가 옳았다고 두둔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언술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시인의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는 결국, 약자를 위한 역사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 강자의 역사였다. 이런 역사는 항상 사람들에게 강자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했다. 그래서 역사는

7) 김광렬, 『풀잎들의 부리』(모아드림, 2005).

제대로 기술되지 못하고 강자를 위해 기술되었다. 하지만, 시인은 역사를 강자의 편에서 보지 않는다. 그는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슬픔을 역사로 기술하고, 그것을 문학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점은 그의 4·3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4·3 때에도 사람들은 죽창을 들었다
그 중에는 억울해서 죽창을 든 사람도 있었다 한다

그 모든 원통함들이 대숲에는 살아 있다
그들의 뼈 아픈 목소리가 댓잎 끝에 서격인다

아,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어야 한다
알고 보면 다 인정 나누며 살던 이웃인 것을

서로 어우러져 살기 위해
대숲에는 대나무들이 뽐뽐이 모여 살고

우리는 여기 고단한 몸 비비며
두 눈 부릅뜨고 곳곳하게 살아가려 애쓴다

— 김광렬, 「대숲에서」⁸⁾에서

이 시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4·3 때 죽창을 들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대숲을 통해 현재로 환원된다. 그 환원의 과정에는 뼈 아픈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시인은 “슬픔은 없어야 한다”는 단호한 어조를 통해 뼈 아픔을 치유한다. 그 아픔의 치유는 대나무처럼 뽐뽐이 어우러져 모여 살면서 느끼는 이웃 사이의 정이다. 결국 시인은 이러한 인식을 통해 더 이상의 분열이 아닌 상생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인의 의지는 결국 대숲에서 자라는 대나무의 의미를 과

8) 김광렬, 『풀잎들의 부리』(모아드림, 2005).

거의 폭력적 모습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시인의 지닌 올 꿈은 모습으로 치환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 한 내용은 작가가 겪은 사연을 포함한 제주사람들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 인식의 대상으로 삼아 문학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에 제시하는 작품은 작가의 개인사적 이야기를 자기 인식의 대상으로 삼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철거덕거리며
기차는 지나갔다
비가 내린다 30년 동안 캄캄하게
한라산이 보인다
묘향산은 보이지 않는다
제주바다 보인다
청천강은 보이지 않는다

—나기철, 『雨期- 청천강·1』⁹⁾에서

인용 시에 나타나는 ‘보인다’와 ‘보이지 않는다’의 대립은 시인이 생활하는 현실의 공간과 그리움의 공간에 대한 대립이다. 그것은 “한라산”과 “묘향산”의 대립이며, “제주바다”와 “청천강”의 대립이다. 시인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이항적 요소를 설정하고 그 속에다 그리움을 내재한다. 그 그리움은 시인에게 30년 동안 이어진 간절한 그리움이며, 시인의 개인사적 이야기이다.

그때 우리는
제주 동부두 창고 2층을 빌어
가마니를 깔고 살았다

그때 서른세 살 어머니는
광제교에 앉아

9) 나기철, 『섬들의 오랜 꿈』(도서출판 등지, 1992).

찜빵을 팔았다

그때 아버지가
부두에서 팔던 냉차
누군가에 의해
수없이 땅바닥에
비워졌다

—나기철, 『1964년 8월-청천강·7』¹⁰⁾전문

인용 시에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공간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겪는 힘겨운 삶의 이야기가 있다. 시인은 회상이라는 장치를 통해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준다. 그것은 제주 동부두 창고 2층에서 가마니를 깔고 살면서 찜빵을 팔고, 냉차를 팔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든 제주 섬에 정착하려는 실항민의 힘겨운 삶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시인은 “누군가에 의해 수없이 땅바닥에 비워졌다”는 표현을 통해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다. 결국, 시인에게 청천강은 돌아가야 할 공간이며, 이상의 공간이다. 1964년 8월에 겪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 ‘청천강·7’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 문학에 나타나는 역사 인식과 문학적 형상화 작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김광렬의 경우 자신을 비롯한 제주사람들이 겪은 약자의 슬픈 이야기를 역사로 규정하고, 그것을 문학으로 형상화한다. 한편, 나기철의 경우 청천강이라는 커다란 아웃라인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겪은 삶의 이야기, 유랑의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개인사적 시 쓰기로 형상화한다. 즉, 김광렬의 경우 자신의 겪은 사연을 포함한 제주사람들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나기철의 경우 자신의 개인사적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다음에는 제주 시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순수 추구의 의지가 어떻게 인식되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0) 나기철, 『섬들의 오랜 꿈』(도서출판 등지, 1992).

3. 순수성 추구하고 문학적 형상화

문학에서 나타나는 순수성은 인간다움의 공간, 획일화된 현대의 삶과 반대되는 자연, 그리움의 공간 등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개인성, 초월성, 영원성 등을 지닌다. 이러한 모습은 제주 시인의 작품에도 나타난다. 순수 추구를 위한 미(美)나 예술성의 강조, 현실이나 상황에 대한 무관심과 초월의지, 무목적성, 자율성 등은 어느 시대에서건 또는 어떤 상황에서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작품은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하는 인간다움의 추구를 통해 순수성을 찾으려는 의도가 담긴 작품이다.

아직은 버릴 수 없는 초록 성을 오를 때
 유년의 솜사탕은
 뽕족담에 걸린 울상 짓고 있다
 훌쩍 옷자란 가시 울타리 속에 창백히 잠들어 있는
 연하디연한 시절들
 이제, 죽음 때문에 질겁하지 않는 나이
 한결 친근해진 삶을 열어보면 나는 아직도
 소녀인 채 삶을 견디고 있다

— 김규린, 『슬픔』¹¹⁾에서

인용 시에 나타나는 ‘초록 성’과 ‘가시 울타리 속’ 사이에서 만들어낸 이항 대립적 속성은 시인에게 유년의 모습에서 변해버린 현재의 모습을 창출한다. 그래서 유년의 파란 꿈은 현재에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해 겁을 먹지 않게 만든다. 시간의 흐름은 시인의 사고를 변하게 만들지만, 시인은 그래도 “소녀인 채로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모습은 시인의 지닌 순수성이며, 후기 산업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할 ‘인간다움’이다. 결국, 작가가 추구하는 ‘순수’, ‘인간다움’은 제주 문학을 형성하는 서정적인 모습이며, 순수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작품은 자연을

11) 김규린, 『나는 식물성이다』(문학과 지성사, 1999).

통해 순수의 공간에 닿고 싶은 욕망을 이야기한다.

먼 바다 푸른 섬 하나
아름다운 것은
내가 건널 수 없는 수평선
끝끝내 닿지 못할
그리움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 한기팔, 「먼 바다 푸른 섬 하나」¹²⁾에서

인간은 자연을 형성하는 하나의 개체일 뿐이다. 이런 인간들에게 획일화된 이미지의 문화는 인간 사고의 자유를 약탈한다. 하지만, 자연은 그 사고들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는 자유를 준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또한 자연을 통해 반성하는 존재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시에서 나타나는 “먼 바다”와 “푸른 섬”은 순수 자연의 공간이다. 그래서 시인은 순수 자연의 공간인 “먼 바다 푸른 섬 하나”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인에게 더 없이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는 “수평선”이란 시어를 통해 자신의 욕망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다. 순수 자연에 도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이와 반대되는 획일화된 현대의 삶에서 순수 자연의 공간은 그리움 자체로 남는다. 그래서 시인은 바다의 의미를 순수 자연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인은 끝끝내 닿지 못할 그리움 때문에 바다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작품은 회상을 통해 순수성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보이는 작품이다.

어느새 모래알 같은 세월이 흘러갔다 학교 건물이 사라지고 그때 그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새벽이면 연꽃을 피웠던 자그마한 연지도 없어졌다 넉넉해졌지만 키가 작아진 듯한 팽나무와 잎 대신 황금빛 열매를 매단 먹구슬나무 곁에 서면 풍금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그 시절 밤바다에 별빛으로 떠 있는 불배는 수평선을 건너고픈 우리들의 날개였다 수평선이 아가리를 버리

12)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2』(제주문인협회, 1996).

면서 우리를 삼켜도 행복한 시절이었다.

— 문영중, 「날개를 꿈꾸다」¹³⁾에서

시인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한다. 시간은 학교 건물, 함께 뛰어놀던 아이들, 자그마한 연지 등 시인의 지냈던 많은 추억의 부분들을 사라지게 했다. 하지만, 시인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복원 작업을 시도한다. 그것은 “황금빛 열매를 매단 먹구슬나무 곁에”서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순수성을 추구하려는 인식이다. 그래서 시인은 먹구슬나무 곁에 서면 풍금소리를 들을 수 있다. 풍금소리는 시인을 다시 그리운 시절로 돌려보내는 환청이다. 그 환청은 “밤바다에 별빛으로 떠 있는 불베”가 지닌 동경의 세계를 회상하게 한다. 이러한 회상은 “우리를 삼켜도 행복한 시절이었다.”를 통해 순수성 지키려는 시인의 자기 인식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시인은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제주 시인에게서 나타나는 순수성의 추구는 ‘인간다운 삶의 추구, 자연, 회상’ 등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시인은 순수를 시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속에서 시인은 그가 지닌 주관적 정서를 자기 인식의 방법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다음에서는 도시문명을 살아가는 시인들의 그것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 도시문명과 문학적 형상화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도시는 하나의 형식적인 틀을 통해 인간을 ‘대중화·도구화·전문화·부품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도시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획일화시키고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존재 가치들을 망각한다. 작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그것은 시인의 일상적인 생활에 연관성을 둔 도시문명 비판이다. 다음에

13) 깨어있음의 시 동인, 『마음의 풀을 베다』(도서출판 각, 2002).

제시되는 작품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엔 햇빛이 쏟아지네
(중략)
한밤중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절름거리며
나도 은하철도 999를 타고 있다.

— 김희철, 『은하철도 999』¹⁴⁾에서

시인은 어린 시절 보았던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를 떠올린다. ‘은하철도 999’는 시인의 마음속에 간직한 순수의 상징이다. 현실에서 시인을 가두어 놓은 것은 ‘아파트’라는 도시 문명의 상징이다. 즉 도시 문명의 상징인 아파트와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영화의 이항대립을 통해 시인은 “절름거리며 은하철도 999”를 타고 있다. 도시의 찌든 삶에서 벗어나고 있다. 즉, 인용 시에 나타나는 일상적 생활의 표현은 도시의 찌든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인의 욕망이자 탈출구가 된다. 이러한 시인의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의 욕망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작품 역시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1일. 바다가 무심히 던지는 추파에 감성돔은 육지로 향했다.

2일. 감성돔은 바다가 보이는 노래방에서 터무니 없는 옥타아브로 「걸어서 하늘까지」를 불러서 99점을 받았다.

(기계는 팡파르를 울리고, ‘참 훌륭한 가수입니다’라고 칭찬함.)

(중략)

14) 김희철, 『침대높이』(은누리, 2003).

6일. 일기예보에 내일은 비가 내린다고 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날씨가 더 추어지리라 했다. 일기예보를 믿어 본 지가 얼마나 됐나? 지금은 겨울, 비가 내린다.

7일. 도심으로 들어간 감성돔은 배가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비내리는 해안선에 빼만 남은 감성돔이 조준경 속의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 변종태, 「가을바다」¹⁵⁾에서

인용 시는 감성돔의 일주일 동안 도시 참관을 기록하고 있다. 시인은 감성돔 관찰을 통해 시인의 세상 보기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시인의 생각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기계는 팡파르를 울리고, ‘참 훌륭한 가수입니다’라고 칭찬함.”이란 구절을 통해 시인은 기계의 팡파르와 훌륭한 가수 사이에 나타나는 오묘한 긴장감을 통해 자연과 문명 사이의 간극을 보여줌으로써 기계문명으로 인한 도시화가 만들어 낸 인간성 상실을 비판한다. 이런 시인의 태도는 “일기예보”, “해안선에 빼만 남은 감성돔” 등의 시구의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자연이라는 큰 흐름에서 날씨의 변화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인간의 욕망은 도시문명을 이용해 날씨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수치화한다. 그래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기예보를 믿지 않는다. 시의 제목의 가을바다인데 시의 구절에 나오는 “지금은 겨울”이라는 시인의 자기 인식은 도시인의 삶의 태도와 도시 문명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시인의 도시 문명에 대한 인식은 자연과 바다를 포괄하는 감성돔을 해안선에 빼만 남게 하였다. 이렇게 시인은 빼만 남은 감성돔과 도시인을 동일시함으로써 현대인의 삶이 도시문명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작품은 자동판매기 앞에서 놓인 지폐를 통해 도시 문명을 살아가는 시인의 자기 인식이 나타난다.

접어진 지폐의 네 귀퉁이를 편다.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넣는다. 반환되는

15)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1』(제주문인협회, 1996).

지폐, 뒤집고 다시 편다. 다시 반환되는 지폐, 네 귀퉁이를 다시 잡아당긴다.
또 다시 반환되는 지폐

더러워진, 구겨진, 너무 얇아진, 혹은 두꺼워진, 나의 좁은 주머니 안에서
더 심하게 구겨졌을 한 잔의 커피로도 바꾸지 못하는 그 천 원짜리 지폐를
바라본다.

그 안에 내가 있다

— 오시열, 『자동 판매기 앞에서』¹⁶⁾전문

인용 시에서 시인과 지폐는 동일시된다. 시인은 자동 판매기로 상징되
는 도시문명 앞에서 구겨진 지폐처럼 문명에 거부당한 현대인이다. 그래
서 시인은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반복적으로 넣어보지만 기계화되고 자동
화된 자동 판매기에 의해 반복적으로 반환된다. 이렇게 나타나는 “넣었다/
반환된다”의 반복적 행위는 결국, 도시문명 앞에선 생활인의 모습을 형상
화하는 동기가 된다.

기계화된 문화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도시문명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더러워진, 구겨진, 너무 얇아진, 혹은 두꺼워진, 나의 좁은
주머니 안에서 더 심하게 구겨져 한 잔의 커피로도 바꾸지 못하는” 존재
이다. 이러한 존재 인식은 시인으로 하여금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언술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인은 기계화된 도시문명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도시인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제주 시인들은 그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도시문명을 바라본다. 그 속에
서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비애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형상화의
작업은 도시문명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시
인은 도시문명에 대해 비판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 문학에는 현대를 살아
가는 사람들의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생활과 연관되어 존재한다.

16) 오시열, 『노란 잠수함을 탄다』(모아드림, 2003).

IV. 결론

이 글은 제주 시인들의 시 인식 대상과 그것에 따른 문학적 형상화 작업을 구명함으로써 제주 문학에 드리워진 다양한 성격을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제주 시인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시 인식의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 그것은 현실사회, 역사인식, 순수성 추구, 도시 문명과 관련한다.

시인들의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은 현실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인으로 하여금 풍자와 고발, 또는 담담하게 그려내기, 현실에 대한 통탄 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제주 문학에 나타나는 역사 인식과 문학적 형상화 작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김광렬의 경우처럼 자신을 비롯한 제주사람들이 겪은 약자의 슬픔이야기를 역사로 규정하고, 그것을 문학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나기철의 경우처럼 청천강이라는 커다란 아웃라인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겪은 삶의 이야기, 유랑의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개인사적 시 쓰기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제주 시인에게서 나타나는 순수성 추구는 '인간다운 삶의 추구', '자연', '희상' 등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시인은 순수를 시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속에서 시인은 그가 지닌 주관적 정서를 자기 인식의 방법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제주 시인들은 그들의 생활과 연관하여 도시문명을 바라본다. 그 속에서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비애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형상화의 작업은 도시문명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시인은 도시문명에 대해 비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제주 문학의 성격에는 사회성, 역사성, 순수성, 생활 연관성이 존재한다.

- 핵심어: 제주 시인, 문학적 형상화, 시인식의 대상, 제주 문학의 성격, 사회성, 역사성, 순수성, 생활 연관성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김광렬. 『풀잎들의 부리』. 모아드림, 2005.
 김규린. 『나는 식물성이다』. 문학과 지성사, 1999.
 김수열. 『어디에 선들 어떠랴』. 파피루스, 1997.
 김희철. 『침대높이』. 온누리, 2003.
 깨어있음의 시 동인. 『마음의 풀을 베다』. 도서출판 각, 2002.
 나기철. 『섬들의 오랜 꿈』. 도서출판 등지, 1992.
 오시열. 『노란 잠수함을 탄다』. 모아드림, 2003.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1, 2』. 제주문인협회, 1996.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2002년 하반기』. 실천문학사, 2002.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2005년 상반기』. 실천문학사, 2005.

2. 단행본·논문·평론

- 강영기. 「김광렬과 나기철」. 『교육제주-2005 겨울』. 제주도교육청, 2005.
 _____. 「식물같은 시인 김규린」. 『삶과 문화』.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_____. 「변모하는 제주바다와 그 의미 공간」. 『제주작가-2004상반기』.
 실천문학사, 2004.
 _____. 『한국 현대시의 대비적 인식』. 푸른사상, 2005.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5.
 한국사회연구소 편. 『사회과학사전』. 풀빛, 1990.

<Abstract>

In the point of view on cognizing a poem and literary
figured of Jeju's poets

Kang Young-gi

This writing examines In the point of view on cognizing a poem and literary figured of Jeju's poets. Also, there is purpose to find Special quality which appear in Jeju's literature through this.

Percept that appear to In the point of view on cognizing a poem of Jeju's poets appears by about four. It refers with actuality society, historical cognition, purity, city civilization. Through these percept, poet materializes it literary. This means is having Jeju's literary sociality, historical consciousness, purity, life-relativity.

- Key words: Jeju's poets, Literary-figured, In the point of view on cognizing a poem, Sociality, Historical consciousness, Purity, Life-relativity